

■ 주간 증시 포커스

코스피 숨고르기... 2550선 안착 타진
700선 넘은 코스닥은 상승세 지속
실적·수급 양호한 종목 비중 늘려야

미국증시 상승을 견인했던 세계개편안이 2019년도로 연기 가능성이 부각되고 트럼프대통령 방한에 따른 경제심리로 전기전자 및 대형주 중심으로 기관의 차익실현매물이 증가하며 코스피지수는 2,542포인트로 하락 마감했다. 그동안 코스피지수 대비 부진한 상승을 보였던 코스닥지수는 700선을 넘은 후 기관의 순매수가 증가하며 2015년 8월 18일 이후 26개월여만에 720선을 돌파하였다. 9월 중순 이후 시작된 코스닥지수의 상승 초기에는 셸트리온 셸트리온헬스케어 신라젠 등 신약관련주로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급증하며 시가총액 상위종목으로 쏠림 현상을 보였고 10월중순부터는 사드 이슈로 하락세를 보였던 중국관련주로 상승종목이 확대되며 추가 상승을 이끌었다.

필자는 그동안 코스닥시장의 상승시마다 시장주도주로 편승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순환매에는 단기적 대응을 권유했었다. 또한 코스닥시장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변화의 확인이 필요하다 여려차례 언급하였다. 새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 지원 및 코스닥시장에 대한 육성에 대한 의지를 수차례 표명하였지만 코스닥시장은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과 외국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순매도와 함께 외면을 당했다. 그런데 지난주 정부는 현재 전체주식투자 금액 중 2% 수준인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1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만약 이렇게 되면 향후 10조원 이상의 코스닥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연기금의 투자가 곧바로 확대된 것은 아니지만 연기금의 투자확대 기대감으로 증권사를 중심으로 선취매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이끌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기대처럼 코스닥시장 전체로 연기금의 매수세가 확대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코스닥 종목내에서도 차별화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코스닥시장의 상승은 정부의 코스닥활성화 의지와 연기금의 코스닥 비중확대라는 표면적인 이슈가 있지만 최근 높아진 코스닥 주요기업의 실적 증가와 성장성이 높아진 것이 촉매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형주 위주로 종목을 편입하는 연기금의 투자패턴을 고려하면 코스닥내에서도 기업의 실적 및 성장성과 안정성을 종목 선정의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지난주 기관의 코스닥시장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에스엠과 코엔텍을 제외한 8개종목이 시가총액 1조원이상이며 이들 종목 중 5개 기업이 시가총액 10위내이다. 따라서 연기금이 정책당국의 의지대로 코스닥시장 비중을 확대한다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코스닥지수의 추가상승 가능성이 높아 비중도 확대하여야 한다. 하지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200여종목 모두 순매수효과가 갈 수 없어 코스닥 150종목을 중심으로 코스닥 300종목내에서 관심을 가져야 상승장에서 소외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주에도 그동안 상승후 숨고르기를 보였던 IT 대형주의 재상승시도가 이어지며 2550선 안착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중 관계 회복에 따라 중국소비관련주, 게임주의 추가상승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제약/바이오업종내 순환매 양상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급개선기대감이 크게 부각되며 연말·연초 기대감이 커진 중소형주와 코스닥시장에서 실적과 수급이 양호한 종목으로 비중을 늘려보는 움직임이 필요할 상황으로 보인다.

정 계 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수확기 쌀값 15만원대...농민들 기대 못미쳐 실망

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 평균 전망치 지난해보다 17.7% 올라

재배면적 감소·시장격리속 향후 매입상황 따라 더 오를 수도

올해 수확기 쌀값이 한가마(80kg)당 15만 2800원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모처럼 15만원대 안착에는 성공했지만 그동안 전망치와 농가에서 기대했던 수준보다는 차이가 있어 지역 농업계에서는 다소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1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에 따르면 이달 쌀 관측을 통해 올해 수확기(10~12월) 쌀값을 조사한 결과 평균 전망치는 20kg당 3만8200원으로 한가마 가격은 15만2800원이다. 이는 2016년 같은 기간 12만9808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17.7% 높은 가격이다. 수확기 평균 벼 매입 예상가도 40kg당 4만

7000원 내외로 전년 대비 24.7%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농협의 벼 매입 예상가는 24.8% 오른 4만7000원, 민간RPC는 4만6000원으로 24%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현상은 올해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5.8% 수준인 24만1000t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벼 재배면적과 단수가 감소한 영향이 컸다는 것이다.

이왕시기에 가뭄이 이어지고, 출수·개화기에 비가 자주 내리면서 단수가 전년 대비 2.8%(15kg·10a) 줄어든 524kg·10a였고, 재배면적도 전년 대비 3.1% 감소한 75만4716ha로 잠정 발표

치 보다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의 쌀 생산량은 지난해 419만7000t에서 올해 395만5000t으로 241t이나 줄었다. 전국에서 쌀 생산량이 가장 많은 전남지역도 전년보다 2만7000t 감소한 820t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쌀은 일반적으로 수확기 시장공급량과 전년 도산 쌀의 올해 단경기(7~9월) 가격, 이월재고량 등의 영향을 받는다.

정부가 시장격리를 신곡 수요 초과량보다 많은 12만t을 추가격리하기로 했고, 지난해 쌀 계절전폭(0.3%)이 발생, 단경기 재고부족 등 신곡조기 출하가 늘어나면서 수확기 쌀값이 지난해보다 높게 형성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다소 실망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당초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부적으로 15만5000원 선까지 가격이 회복할 것이라

는 등 정부에서 전망한 값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또 농가들은 현재 수확기 쌀값이 15만원대보다 더 올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변동직불금이 발동되지 않는 수준인 17만원대까지는 회복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올해 수확기 쌀값 전망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원료곡 매입을 확정짓지 못한 산지유통업체들도 향후 매입상황에 따라 전망이 변동될 수 있을 가능성도 크다. 앞으로 실제 수확기 쌀값이 이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쌀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농가들이 기대했던 수준은 아니다”며 “수확기 쌀값이 전망한 가격보다 더 오를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지난 8일 전북·넙치·해삼·김·뽕장어 등 5개 품목에 지원한 양식 창업예정자들이 완도 조선태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에서 창업실무(이론)과정에 참여해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고 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제공>



불법어업 단속 강화 워크숍 전남도는 지난 9~10일 이틀간 여수 경도리조트에서 도·시·군 어업감독 공무원 65명을 대상으로 불법어업 단속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남도 제공>

큰장거미·전복·넙치·해삼·김·뽕장어 창업예정자 본격 교육

전남어촌특화 친환경기술센터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산하 친환경 양식 기술지원 및 원스톱 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지난 8일부터 전국 공모를 통해 선발된 창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에 들어갔다. 이번 교육 및 컨설팅은 창업실무(이론)과정부터 심화교육, 현장실습, 컨설팅 등 4단계로 구성돼 오는 12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12일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7월 큰장거미양식 기술이전교육을 이수한 30명과 전북·넙치·해삼·김·뽕장어 등 5개 품목에 지원한 36명 등 66명이 각각 8일과 9일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장성민물고기연구소, 완도 조선태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에서 각각 창업교육에 들어갔다.

창업실무(이론)교육을 이수한 후 큰장거미양식 창업예정자는 영남·강원·전북·수도권·전남·제주 등에 각 지역별로 거점을 마련해 이후 심화교육, 현장실습 등에 나선다.

전복·넙치·해삼·김·뽕장어 등의 창업예정자는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완도·진도·해남지원, 장성민물고기연구소 등으로 분산돼 교육을 받는다.

전복·넙치·해삼·김·뽕장어 등의 창업예정자는 이후 사단법인 수산업경영인 전남도연합회가 실시하는 현장실습에 참여하게 된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창업교육 및 컨설팅은 전국에 거주지를 둔 양식 창업예정자들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했다”며 “우수한 양식기술을 보유한 전문기관, 이미 양식업에 종사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양식전문가 등을 연계했다는 점에서 창업예정자들의 신속한 창업에 돕는 질 높은 교육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교육은 창업예정자들이 양식장에서 직접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업과정에서 불가피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참가자들에게 숙박비, 교통비(실비 기준), 식비, 현장교육 시 교육비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chadok@kwangju.co.kr

농업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 1000만 서명운동·캠페인 펼쳐

농협 광주·전남지역본부

지난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광주·전남지역 농협들이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한 대대적인 1000만명 서명운동을 벌였다.

12일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에 따르면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10일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등굣길 대학생들과 출근길 시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가두캠페인과 서명운동을 벌였다.

박태선 본부장과 지역농협 조합장들은 광주 시청에 모여 ‘농업가치 헌법반영’ 안내장을 나눠주며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김귀남 영업본부장과 NH농협은행 직원들도 전남대학교 일대에서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농업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또 앞서 지난 9일에는 광주시민광장에서 개최된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찾아가 농업관련단체

와 연대해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은방 시의회위원장 등도 서명운동에 동참하며 ‘농업가치 헌법반영’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흥목)도 지난 10일 지역 21개 시·군지부 및 147개 지역 농·축협에서 대대적인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농업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지난 10일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목포버스터미널, 목포역 일대에서 가두캠페인을 진행했다.

이흥목 본부장은 “농업인의 간절한 바람인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모든 분들의 이해와 협력이 절실하다”며 “지속가능한 농업과 국토균형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서명운동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북구, 삼각동 토지

- 광주 북구 삼각동 209, 209-1번지 - 203평
147-4, 11, 15번지 - 313평
- 31사단, 삼일아파트 지나서 옆마을
- 총 516평, 필지별 매매가능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장기간 투자 최고지역
- 매매 - 8억7천7백만원 (평당 170만원)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9억9천6백만 (평당 70만원)

“무인텔”

콘도 / 리조트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2013년 준공)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55억
- 온천지구 내 ‘(주) 바리오 화순’에
650억 투자 예정 (2018년 2월 착공예정)
- 요양병원, 연수원 등 용도변경 가능
“타 물건과 교환가능”

주인직매 010-3605-5000